

환경부
보도자료

- 2005. 3. 배포
- 총 매
- 사진 없음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기획단	이민호 단장 송용권 사무관	전화 (메일)	02-2110-7912 bloodykane@me. go.kr
-----------------------------------	-------------------	------------	---

“2005

”

- “ ” , 3.24~29, ()

- 50 가, • 44

- 3.23() 10:00 • ESCAP

2005 가 •

• 44 50 ,

300 가

•

“ 가 ”

○ 「

」 •

■ •

(UNESCAP) 3.23 D-1

가

■ 아·태지역 39억의 이목 서울로 집중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환경부와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가 3월 24~ 29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 ※ UNESCAP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 MCED 2005 :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005
 - ※ MCED는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실천방안 제시를 위한 유엔 주관 장관회의로 1985년 창설 이래 5년마다 개최되어, 이번이 제5차 회의
- 이번 회의는 아·태 지역 50개국 정부대표단과 UNESCAP, 유엔 환경계획(UNEP),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30여개 국제기구의 대표 및 민간단체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전세계 인구의 61%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최대의 환경 회의가 될 전망이다.
 - ※ 3.17일 현재 44개국 등록, 39개국에서 44명의 장·차관 참가의사 표명
 - ※ 제4차회의(일본 키타큐슈)에는 43개국(장·차관 29명) 참가
- 정부대표단간 다양한 양자회담과 지역별 회의는 각국의 환경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장으로써 이번 회의는 명실상부한 아·태 지역 최고의 환경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 회의는 김학수 UNESCAP사무총장, 클라우스 토퍼(Klaus Toepfer) UNEP사무총장, 하루히코 구로다 ADB총재, 키요타카 아카사카 OECD사무차장, 쇼지 니시모토 UNDP 개발정책 실장 등 국제기구 인사와, 모스타파 톨바(Mostafa Tolba) 前 UNEP사무총장 등 국제적 저명인사가 대거 참가함으로써 논의의 깊이를 더할 것이다.

■ 장관회의 개최 전 고위급 실무회의 열어

- 이번 회의는 장관회의(Meeting of Ministers)와 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의(Preparatory Meeting of Senior Officials)로 구성되는데,
 - 3.24(목)~26(토)개최되는 아·태 50개국 국장급 대표단 참여의 고위급 실무회의는, 2005 아·태 환경상태 검토, 2006-2010 지속가능발전 지역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태 장관선언 등 장관회의 의제를 사전 검토하게 된다.
 - 3.28(월)~29(화)에 개최되는 환경·개발부처 장관급 대표들의 장관회의는 아·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각국장관들의 연설에 이어, 장관선언문·지역이행계획 등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 장관회의 개막식 : 3.28 08:40~09:45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주요 예상 결과물>

- ▶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선언
- ▶ 2006-2010년 아·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이행계획
- ▶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고민하는 환경회의”

- 이번 회의는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국가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최초로 장관급회의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장관들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환경 지속가능성 및 환경 성과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환경,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유형**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환경관련회의로는 드물게 환경부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경제 및 개발부처 장·차관이** 참석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7개국 개발부처의 장·차관이 등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8일 개막식에 산자, 건교, 농림부 등 경제부처장관 참석 예정
- 우리정부는 과거 고속성장과정에서의 환경문제 해결 경험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인 바, 채택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아·태 개도국에 적실성 있는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환경성과 제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환경 등의 정책이행 분야를 제시하며,
 - 회원국 정부,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구축, 정책워크숍 개최 등 구체적 이행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 작년 12월의 쓰나미 피해 보고 및 대응 논의

- 또한 장관회의에서는 작년 12월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함께 피해상황 보고와 재해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아·태 지역 국가간의 협력과 우호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국제환경회의

- 고위급 실무회의 기간 중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각계 참여하에 회의주제와 연관되는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그 논의 결과는 장관회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 3.23~24일간에는 한국 소비자시민모임과 UNESCAP 주관으로 을 개최하여 “녹색 소비와 자원 순환”, “미디어와 교육” 등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포럼에는 일본, 인도, 중앙아시아 등 국제 NGO 대표와 미디어 등 약 130명이 참가한다.
- 또,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UNESCAP 주관으로 이 개최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업운영방안”을 모색한다.
 - 환경부와 전경련의 공동 후원으로 정부, 연구소, 산업계, 학계, NGO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 국내 주요기업들의 환경경영 경험사례와 정부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산업계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 환경과 개발 분야의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경제학자들이 참여하는 과 도 개최될 예정이다.
 - 3월 24~25일간의 은 “지구변화-환경과 개발” 을 주제로 기후변화, 산림, 대기오염 등에 대한 저명 과학자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있게 된다.
 - 이 포럼은 국제지구권·생물권연구계획(Internation Geosphere Biosphere Program: IGBP)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공동 주관하며, 톨바(Mostafa Tolba) 前UNEP사무총장이 좌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3월 26일에는 UNESCAP과 강원대, 한국 공공재정·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08년 동북아 환경·경제정책분야 정책 및 이슈를 다룬**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태 지역의 녹색성장”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경제정책분야 정책 및 이슈를 다룬 예정이다.

- 3월 27일에는 **2008년 동북아 환경·경제정책분야 정책 및 이슈를 다룬** (APFED : The Asia-Pacific Forum for Environment & Development) 이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주제로 개최되어 지난 4년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장관회의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의 환경신기술 소개

- 3월 24~26일에는 **2008년 동북아 환경·경제정책분야 정책 및 이슈를 다룬** 이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개최된다. 참가국 환경담당자, 국내외 민간단체·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환경신기술 소개와 환경시설 견학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을 체험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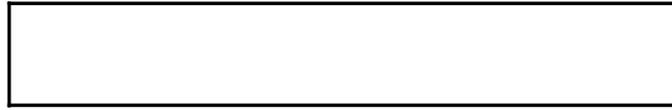
- 이번 포럼은 780억 USD(일본제외) 규모로 연 15%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환경시장을 고려할 때, 한국 환경산업의 대외진출을 확대하는데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 황사대응의 필요성 환기

- 3월 25일에는 회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2008년 동북아 환경·경제정책분야 정책 및 이슈를 다룬** 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UNEP, UNESCAP, ADB,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사무국과 한, 중, 일, 몽 등 동북아 4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황사대응 동북아협력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동북아 황사문제에 관한 아·태지역 각국과 여타국제기구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짜임새 있는 준비로 회의 성공개최 이끌어

- 환경부는 2004년 UNEP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 작년 6월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태국 방콕에 위치한 UN ESCAP과 5차례에 걸친 양자협의 회의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성공적인 회의개최를 위해 노력해 왔다.
- 특히 경찰청, 소방방재본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참가자 신변 보호를 위한 금속 탐지기(MD) 설치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회의장인 롯데 호텔 내에 현장의료반을 운영하는 등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 및 의료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1. 2005 .
2. .
3. (: 3.23(水),)
4. 가
5. 가 VIP
6. UNESCAP(.)
7. UNESCAP Profile
- 8.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요

I. 회의 개요

회의 명칭

- 영문 :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05 (MCED 2005)
- 국문 :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일시 : '05.3.24~26(고위급 실무회의), 28~29(장관회의)

※ 고위급 실무회의기간 중 민간단체·산업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포럼, 기업포럼, 환경기술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 연계 개최

장소 :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주관 :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환경부

주제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아·태지역 최초로 장관급회의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 방안 논의

참가 규모 : 약 300명 (연인원 1,000명)

- 50개국 환경·개발부처 장관 및 고위급 정부대표, UNEP, UNDP, ADB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
- ※ 김학수 UNESCAP사무총장, K. Toepfer UNEP사무총장, H. Kuroda ADB총재, K. Akasaka OECD사무차장 등 참가 예정

II. 유치 배경

□ 유치 목적

- 아·태 지역 내 환경선도국가로서 국가위상 제고 및 기후변화협약 등 향후 환경협상에서의 유리한 여건 조성
 - 제주에서 성공 개최한 UNEP 제8차 특별총회('04.3)의 성과 연계
- 연 15%로 급성장하는 아시아 환경시장에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진출기반 강화

< 환경시장 현황 >

(단위 : 억달러, %)

		()	
규 모	5,180('00)	780('05)	124('03)
성장률	5.0~5.8	15	12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99), 산자부(2001), 한국은행(2004)

- 환경과 경제의 상생방안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

□ 유치 경과

- '02 ~'03 : UNESCAP에서 우리나라 개최 요청
- '04. 4 : 제60차 ESCAP총회(상해)에서 유치의사 표명
- '04. 7 :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 '04. 8 : 행사개최 결정 UNESCAP최종 통보

Ⅲ. 주요 논의사항

□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선언

- 환경 보전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포괄적 권고안 채택

□ 2006~2010년 녹색성장을 위한 아·태 지역이행계획

- ※ 부대행사를 통해 수렴된 시민단체, 산업계 등 민간부문의 권고사항을 장관선언과 아·태 지역이행계획에 반영 추진

□ 녹색 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환경성과 제고,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환경 역할 강화 등 3대분야에 대한 정책이행 분야 제시

□ 기타, 아·태 환경상태 점검, 쓰나미 피해대책, 황사·토양 황폐화 등 소지역별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논의 배경

▶ 아·태 지역의 환경 용량에 대한 압력 증가

- 전체 육지의 23%에 세계 인구의 62%가 거주 (2001)
- 급속한 성장 : '95~'02년 아·태 개도국 산업생산량 40% 증가 (세계평균 23%)

▶ 심각한 빈곤문제로 경제성장 요구 증대

- 하루 1\$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이 아·태 인구의 22%인 7억명으로 세계 빈곤층의 65% 차지 (2005, 세계은행)
- 04.12월의 쓰나미는 약 200만 명의 빈곤층을 유발 (2005, ADB)

본회의 · 부대행사 일정 및 주요 참가자

날 짜	시 간	장 소	행사명	주요 참가자
3/23 (水)	09:30~18:30	3F #2,3	시민사회포럼(1일차)	국내 NGO 관계자 등
	10:00~10:40	2F	개회 Press Conference	환경부 장관, ESCAP ES
3/24 (木)	09:00~09:30	2F	고위급 실무회의 개회식	환경부 장관, ESCAP ES, 회원국 정부대표단
	09:30~17:00	2F	고위급 실무회의	
	18:30~20:00	3F	고위급 실무회의 리셉션	환경부 장관 주최
	09:00~16:30	3F #2,3	시민사회포럼(2일차)	국내 NGO · 미디어 관계자
	08:30~17:30	36F	저명과학자심포지엄(1일차)	KEI 원장, Dr.Tolba 전UNEP ES, 등 저명 과학자
	10:30~16:30	3F #4	환경기술포럼(1일차)	회원국 환경담당자 및 국내외 민간단체 · 산업계 등
	12:00~16:15	36F	지식전파사업(KP)설명회	환경부, 재경부, 세계은행 등 관계자
3/25 (金)	09:00~17:00	2F	고위급 실무회의	회원국 정부대표단
	08:30~18:20	3F #2,3	기업포럼(1일차)	KBCSD, ADB 유한킴벌리, LG 등 기업관계자
	10:00~17:30	3F #4	환경기술포럼(2일차)	두산중공업 등 주요 산업계 관계자
	08:30~17:30	36F	저명과학자심포지엄(2일차)	저명 과학자 및 기후학자 등
	13:10~14:30	36F	항사사업설명회	환경부 차관, UNCCD 사무총장
3/26 (土)	09:00~12:00	2F	고위급 실무회의	회원국 정부대표단
	09:00~12:30	3F #2,3	기업포럼(2일차)	삼성 SDI 등 기업 관계자
	10:00~12:30		환경기술포럼(3일차)	-
	09:00~18:30	36F	환경경제학자심포지엄	한국 공공재정 · 경제학회장 등 주요 경제학자
3/27 (日)	17:00~19:00	3F #2,3	아 · 태 저명인사포럼	김명자 국회의원 아 · 태저명인사포럼(APFED) 관계자
3/28 (月)	09:00~09:45	2F	장관회의 개회식	환경부 장관, ESCAP ES, UNEP ES, ADB 총재, UNDP 대표 외 각국 환경과 개발 장관 등
	09:45~17:30	2F	장관회의	
	18:30~21:00		장관회의 환영리셉션	환경부 장관 주최
3/29 (火)	08:30~17:00	2F	장관회의	각국 대표단
	17:00~17:30	2F	폐회 Press Conference	환경부 장관, ESCAP ES
	18:00~20:30	2F	장관회의 환송리셉션	서울특별시장 주최

< 3 >

회의 주요 의제 : 책자 추후 배포

(3.23 水 10:00~ 롯데호텔, 한·ESCAP 개회 공동기자회견)

주요 참가자 현황

구 분		인원 (명)	참 가 자
계		1,000	
국외	정부 대표단	160	각국 환경장관 등 50개국(추정)의 각료급고위급 정부대표
	UN ESCAP	50	UNESCAP사무총장(김학수) 등 UNESCAP 관계자
	국제 기구	70	UNEP사무총장(Klaus Toepfer), ADB총재(Haruhiko Kuroda), OECD사무차장(Kiyotaka Akasaka), UNDP개발정책실장(Shoji Nishimoto),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 단체· 학계	120	Mostafa Tolba ICED회장(前UNEP사무총장), Hama Arba Diallo UNCCD사무국장,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ICC(국제상공회의소), APFEJ(아태환경언론인포럼) 등 관계자
국내	정부 대표단	40	환경부장관(곽결호), 차관(박선숙), 국무총리실, 외교부,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담당관 등 정부대표단
	정부 초청 인사	130	지속가능발전위원장(고철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서울시장, 정부산하단체 임원 등
	시민 단체	100	최열(환경재단),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박영신(녹색연합),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대표
	기업, 학계	260	전경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환경산업협회 등 업계, 기후변화, 환경경제학자 등 학계 관계자
미디어		70	CNN, CBS, 신화사, 로이터 등 외신사, 국내언론사 등

참가 주요 VIP

구분	성명	주요 약력
UNESCAP 사무총장	김학수	대한민국 강원 원주 출생('38년생, 67세) 유엔·개발협력국 경제계획관('81~'89) 아·태지역 국제기구 콜롬보플랜 사무총장('94~'99) 現 UN 사무차장 겸 UN ESCAP 사무총장('00~)
UNEP 사무총장	클라우스 토퍼 (Klaus Toepfer)	독일 발덴버그 출생('38년생, 67세) 독일 연방환경·자연보전·핵안전부 장관('87~'94)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의장('94~'95) 現 UN 사무차장 겸 UNEP 사무총장('98~)
ADB 총재	하루히코 구로다 (Haruhiko Kuroda)	일본 출생('44년생, 61세) 前 일본 재무차관 現 ADB 총재 ('05.2.1~)
OECD 사무차장	키요타카 아카사카 (Kiyotaka Akasaka)	일본 출생('48년생, 57세) 주UN대사('00-'01) 現 OECD 사무차장
ICED 의장	무스타파 톨바 (Mostafa Tolba)	이집트의 세계적인 환경학자 카이로대학 미생물학 명예교수 前 UNEP 사무총장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개요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설립배경 및 목적

- '47.3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에 의거 창립
- UN경제사회이사회 직속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서 역내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회원국 53, 준회원 9)
 - ※ 한국은 '49년 준회원, '54년 정회원국으로 가입 (북한은 '92년 정회원국으로 가입), 한국인 사무총장(김학수) 재임 중(2000~)

□ 환경분야 활동현황

- 환경과 개발 각료회의(매5년)
 -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행동계획 채택, 수행성과 평가
- 세계화위원회(격년)
 - UNESCAP 3개 위원회의 하나로서 역내 환경상황 점검, 지역행동계획 이행점검 및 천연자원·에너지 개발분야 우선사업 발굴 추진
-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임시사무국, 동북아 황사방지 지구환경금융(GEF)사업 추진

□ 한국과의 협력관계

- 한·UNESCAP협력기금 설치('87.9) : '04년까지 총 872만불 기탁
- UNESCAP사무국에 무상전문가 파견 : '05년 현재 8명

□ 회원국 현황

연번	국 가 명	연번	국 가 명	연번	국 가 명
1	나 우 루	22	솔로몬군도	43	통 가
2	네덜란드	23	스리랑카	44	투르크메니스탄
3	네 팔	24	싱가포르	45	투 발 루
4	뉴질랜드	25	아르메니아	46	티 모 르
5	대한민국	26	아제르바이잔	47	파키스탄
6	라 오 스	27	아프가니스탄	48	파푸아뉴기니
7	러 시 아	28	영 국	49	팔 라 우
8	마셜군도	29	우즈베키스탄	50	프 랑 스
9	마이크로네시아	30	이 란	51	피 지
10	말레이시아	31	인 도	52	필 리 핀
11	몰 디 브	32	인도네시아	53	호 주
12	몽 골	33	일 본	준 회 원	
13	미 국	34	그 루 지 아	1	괌
14	미 얀 마	35	중 국	2	뉴칼레도니아
15	바누아투	36	카자흐스탄	3	니 우 예
16	방글라데시	37	캄보디아	4	마 카 오
17	베 트 남	38	키르기즈스탄	5	북마리아나군도
18	부 탄	39	키리바시	6	사 모 아
19	북 한	40	타지키스탄	7	쿠크군도
20	브루나이	41	태 국	8	프랑스령폴리네시아
21	사 모 아	42	터 키	9	홍 콩

김학수 UNESCAP 사무총장 Profile

성 명: 김 학 수 (Kim Hak-Su)

생년월일: 1938년(67세)

출 생 지: 한국 강원 원주 출신

주요학력: 연세대 상대, UK 에딘버러대 석사,
US Carolina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60~'71 : 한국은행 조사부 금융재정과, 국제경제과
- '71~'73 :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조사역
- '77~'79 : 대우 해외사업본부담당 이사, 대우금속철강본부담당 이사
- '79~'81 : 미국 뉴욕 대우 현지 법인 사장
- '81~'89 : 유엔 개발협력국 경제계획관,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수상 경제고문 역임
- '93~'94 : 한일종합금융연구소 소장,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94~'99 : 아태지역 국제기구 콜롬보플랜 사무총장
- '99~'00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담당 대사
- '00~현재: UN-ESCAP 사무총장

행사 엠블렘 설명



MCED 2005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05

:

- 중앙의 비상하는 녹색 새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녹색환경을 의미하며 새를 둘러싸고 있는 파란 원은 상승하는 경제 성장을 상징함. 즉, 파란원안에서 비상하는 녹색 새를 통해 회의 주제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아내고자 함
- 또한 태극 문양은 “조화”와 “포용”을 통해 아·태지역 각국의 번영과 상생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개최지인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줌